

# 우리 나라 西海岸의 水産業 및 水産教育機關의 變遷過程에 관한 史的 考察 (古群山 群島의 隣接地域을 中心으로)

李 吉 來  
(群山人學校)

## I. 序 論

### 1. 研究의 必要性

우리 나라 서해안은 해안선이 屈曲이 많고, 광활한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해역이 100m 이내의 大陸棚으로 형성되어 있는데다가 溫暖한 해류와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어서 동해나 남해안에 비하면 특유한 特性을 지니고 있는 해역이다.

우리 나라가 水産物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19세기 이전의 이 어장에는 주로 淸國과 日本漁船들이 우리 領海를 침범하여 불법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었으며,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도 일본은 후진된 우리 나라의 산업개발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어업, 양식, 제조업을 비롯하여 水産資源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그 자료를 日人들에게만 자료 제공하고 한국인에게는 어업, 양식, 제조업의 單純勞動에만 종사하도록 하는 수산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인의 수산업은 零細性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점진적으로 서해안 수산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인에게도 고급 水産人才의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915년에 전북 군산에 수산학교를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역적 특성과 관습 때문에 水産人才 양성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광복과 더불어 일본인들이 이 땅에서 물러감에 따라 그들로부터 수산업체를 물려받아 어업을 경영하였지만 운용의 未熟과 기술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우리 정부도 수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水産人才 양성에 힘을 기울이게 되었지만, 인재양성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sup>1)</sup>

산업의 발전은 그에 관한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生成, 發展, 衰退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1) 水友會, 현대한국수산사, 고려서적, 1987, p. 626.

따라서 우리 나라 서해안의 수산업이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는 점을 도외시할 수 없다.<sup>2)</sup> 필자는 우리 나라 서해안 중·남부지역에서의 수산업 발전과정 중 수산교육기관의 變遷過程을 연구하여 서해안 발달과정의 문제점과 어장관리의 허실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어장관리(감소되어가고 있는 자원, 새로운 양식어종을 개발·육성방안, 수질오염방지 등)와 항구적인 서해안의 수산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資料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研究의 範圍와 方法

우리 나라 서해안의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인접어장은 지리적 여건과 해양 조건이 적합하여 옛날부터 좋은 어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8·15해방과 더불어 사회적 변혁과정과 함께 漁場管理 소홀, 해양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의해 海況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수산자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時代에 병행하여 수산업에 종사할 인재들을 양성할 수산교육기관 설립의 그 背景과 運營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서해 수산업의 발전과 무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필자는 양자간의 그 동안 변화되어온 과정을 한말, 일제시대, 광복이후 혼란기, 1962년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의 근세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나, 국제적인 分爭史, 어항개발과 어선·어구개발 및 원양업 개발사 등과 연근해 어장의 시대적인 一括性있는 통계적인 변동사항은 여기서 다루지 못했다. 다만 개발과정 및 어장형성과정과 어장이용에 관한 실태만을 시대성에 따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그 동안 仁川, 莞島水産高等學校에서 양성한 수산인재가 서해수산 발전에 더러 공헌한 바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충남과 전북의 교육기관만으로 국한시켰다.

## II. 水産業의 變遷과 概況

### 1. 漁業

#### 1) 主要漁業

##### (1) 鮫鰈網漁業

韓·日 合邦이후 보급된 어구·어업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이 안강망 어업이다.<sup>3)</sup> 이 어구는 긴 자루모양의 그물을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닻으로 해저에 고정시켜 놓고 어군이 조류에 밀려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획하는 것으로, 그 동안 그물어구를 전개하는 것은 수해와 암해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선이 대형화됨에 따라 漁具의 網口展開를 위해 展開帆布를 사용한 어구가 동중국해 등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90년대부터는 충남, 전북 연안 일원에서도 소형개량어구가 사용하고 있다.

2) 김수관외, 전북 수산교육에 관한 사적고찰, 수산경영론집(II) Vol 24(2), 1993, p. 55.

3) 이길래외, 서해안 수산업에 관한 사적고찰(II), 군산수대논문집 Vol 20(2), 1986, p. 49.

(2) 小型汽船底引網

이 어업은 일본인에 의하여 傳來된 어업으로<sup>4)</sup> 트롤선과 같이 20톤內外의 기선으로 자루그물을 끌어 자루에 들어간 모든 底棲魚族을 잡는 어법으로 일제시대부터 해방된 직후에 무질서한 사회적 혼란기를 이용하여 성행한 어업이다.

(3) 手操網 漁業

일본에서 傳來된 어구·어법으로 어획능률이 좋고 소자본과 소수 인원으로 조업이 가능하여 5~7월에 주로 고군산군도, 죽도, 연도근해에서 도미, 가자미, 넙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였다.<sup>5)</sup>

(4) 流刺網漁業

古來로 삼치, 조기, 게 등을 대상으로 하는 底刺網이 있었으나, 1911년부터 고등어, 삼치, 준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流刺網이 급증하였다. 삼치유자망은 5~7월에 고군산군도, 竹島, 연도근해에서 준치유자망은 금강부근에서 조업하였다. 지금은 서해안에서 조기, 삼치, 민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sup>6)</sup>

(5) 一本釣漁業

이 어업은 갈치, 조기, 낙지, 一本釣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제하에서는 고등어, 삼치, 도미, 농어, 감성돔, 오징어 日本釣 어업 등이 성업하였다.

西海岸에서는 도미, 농어, 조기, 삼치, 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5-6월경에 각 어장에서 시작하여 11월경에 끝났다.<sup>7)</sup>

(6) 地引網漁業

小型은 주로 멸치를 대상을 하였으며, 大型은 도미, 전어, 삼치를 대상으로 하여 內草島, 於靑島에서 조업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조업하지 않는다.<sup>8)</sup>

(7) 延繩漁業

연승어업은 도미, 농어, 가오리 등을 대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西海岸에서 성행하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도미연승어업이 가장 성황을 이루었고, 전갱이연승도 충남과 전북에서 많이 성행하였다. 그 외에 홍어, 농어, 참치, 도미, 민어 등을 대상으로 沿近海에서 조업하고 있다.<sup>9)</sup>

(8) 尾中船, 眼鏡網 漁業

미중선, 안경망 어업은 소형안강망어업의 일종으로 미중선은 1개의 囊網, 兩翼網과 引網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망어구로 낭망에 들어온 대상어를 잡는 어구로 연안에서 조업하고 있다. 眼鏡網 어업은 양현에 직사각형의 틀에 어구를 부착하여 조류의 방향에 설치하여 그 모양이 안경과 같다하여 眼鏡 배라 부른다. 이 어업은 60年代 初에서 70年代末까지 錦江 하구의 航路上에서 첫새우, 雜魚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나 현재는 불법어업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어장고갈로

4) 이길래, 서해안의 수산업에 관한 사적고찰(Ⅲ), 수산과학연구, Vol(14), 1998. p. 217.

5) 新田獻二, 어업일반, 성산당, 1961, p. 168.

6) 군산시 수협, 군산시수협 50년사, 1984, p. 314.

7) 이길래, 전계논문, 1993, pp. 46~47.

8) -, 전계논문, 1993, pp. 47~49.

9) -, 전계논문, 1993, pp. 46~47.

없어졌다.<sup>10)</sup>

(9) 囊長網 漁業

우리 나라 남해와 서해안의 도서주변에 수심이 얇고 조류가 강한 곳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구는 翼網과 囊網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익망과 낭망 끝을 닳으로 고정시켜 놓고 썰물과 들물시 어포부에 어획된 것을 들어올려 어획한다. 주 어획대상은 멸치, 실치, 잡어 등이다.<sup>11)</sup>

(10) 建干網 漁業

조류가 강한 연안에서 조류에 正橫이 되도록 항목을 땅에 세우고 항목에 그물을 고정하여 干潮時에 그물에 걸려 잡은 어구로서 서해 연안에서 새우, 숭어, 뱀뱀이, 민어, 농어, 잡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sup>12)</sup>

(11) 其他 漁業

우리 나라의 재래 漁具중에 韓末 서해안에서 실시되었던 어구로는 柱木網, 漁箭, 中網, 碇網, 弓網 등이 있었다. 그리고, 연안에는 漁箭漁業, 五角網漁業, 石線網漁業, 柱木網漁業, 형망어업 등이 있고, 沿近海에는 中型기선저인망어업이 있다.<sup>13)</sup>

〈표 1〉 主要 水産物 漁期 및 漁具

水産物	漁期	盛漁期	主 要 漁 場	主要漁具 및 漁船
미역	3~8월	4~5월	어청도, 고군산도	竿捲림
김	1~4월	2~3월	어청도, 고군산도	水槽網
해삼	3~8월	5~7월	어청도 근해	裸潛, 潛水器
상어	6~11월	5월중순	어청도, 고군산군도	鮫鱓網, 中船網, 延繩, 流繩
주년	1~3월	1~3월	어청도, 고군산군도, 줄포	延繩, 延繩空釣鮫鱓網
넙치	5~8월	6월	어청도, 고군산도, 죽도	手線網, 空線, 機船底引網
고등어	6~10월	6월	어청도 근해	流網, 巾着網
멸치	7~11월	8~9월	어청도, 고군산군도	地引網, 초奇網
조삼기	4~1월	5~6월	어청도, 고군산도, 죽도, 연도근해일대	延繩, 鮫鱓網, 柱木網, 漁箭
조삼치	5~6월	5월	고군산군도, 죽도, 연도	流網
대구	11~3월	12~1월	어청도, 고군산군도	延繩
도미	5~11월	5~6, 9~11월	죽도, 고군산군도, 어청도	延繩, 一本釣
청어	4~11월	5~10월	죽도, 고군산군도	手線網, 機船底引網
전광어	6~7월, 10월	6월	어청도 근해	流網, 巾着網, 漁箭
새우	주년	5~9월	어청도 근해	曳網, 鮫鱓網
송어	11~3월	11~1월	금강, 만경만, 줄포	鮫鱓網
참장어	5~9월	6~7월	고군산군도, 안마도근해	延繩, 鮫鱓網
가사리	4~9월	6~7월	어청도, 고군산군도	流網, 巾着網
병치	6월	6월중순	어청도, 고군산군도	流網, 鮫鱓網, 中船網
민어	4~8월	5월	금강하구	延繩, 鮫鱓網, 中船網
홍어	12~3월	12~2월	금강하구	延繩, 鮫鱓網, 中船網
오징어	5~6월	5월	어청도 근해	延繩, 鮫鱓網, 中船網
뱅어	4월	4월중순	고군산군도, 죽도, 줄포만	오징어延繩
갈치	5~6월, 8~10월	6~7월	금강 강내 고군산군도, 연도, 어청도 근해	尾中船 鮫鱓網, 延繩, 流網

자료 : 조선총독부 통계 년보, 1938

10) 이길래, 안강망 어업에 관한 연구(II), 군산수대논문집 Vol 2(1), 1968, p. 43.

11) -, 남장망 어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군산수대논문집 Vol 15(1), 1981, p. 59.

12) -, 전계논문, 1998, p. 218.

13) -, 전계논문, 1986, p. 32.

## 2) 漁場과 漁期 및 漁獲量

서해안 남중부는 그 배후지에 호남, 논산평야 등의 비옥한 농토가 광활하게 펼쳐있어서 지형은 대체로 낮고 평평하며, 각 도시와 농촌간에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전북지방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그리고 충남은 서천군, 보령시 등이 각각 지역간의 산업과 비교적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또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南으로는 위도와 칠산바다, 西로는 어청도, 北으로는 개야도, 천수만 등에 도서가 산재해 있고, 연안은 굴곡이 심한데다가 수심이 매우 얇다.

古群山群島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중심부의 연근해어장은 錦江, 萬頃江, 東津江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1905년 일본인 下啓助, 山協宗次가 저술한 韓國水産業報告書에 의하면 중부서남해안어장을 ①고군산군도어장, 죽도 연도근해어장 ②칠산도·위도근해어장 ③어청도근해어장 ④鹿島, 狐島, 馬梁島, 淺水灣 근해어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고군산군도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위도, 칠산도 등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어장은 수심이 얇고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데다가 해수가 진동하거나 도약으로 인하여 부유 생물의 양이 적지만 계절에 따라 수온의 변화가 심하여 魚群이 適水溫을 찾아 回遊해오는 어장이라 볼 수 있다.<sup>14)</sup>

일제시대 중요 수산물의 어장, 어기 및 어구를 표 1에서 살펴보면 이 해역에 來遊하고 있는 어족은 조기를 비롯하여 민어, 갈치, 삼치, 고등어, 송어, 새우, 멸치 등인데 그 동안 韓國在來의 漁網인 中船網, 漁筍, 柱木網, 地引網, 弓船網, 碇網 등으로 이들 어족을 어획하였다.

그러나 한일합방 후에는 안강망, 연승, 一本釣, 유자망 및 기선저인망, 手操網등이 일본에서 전래되어 성업하였다.

또한 서해안 중심부의 外海에는 수심이 비교적 깊으므로 고등어, 전갱이, 삼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자망, 건착망 어업과 底棲魚族을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어업의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수온이 비교적 높은 남부해역으로 남하하여 월동하던 어족이 수온이 상승하는 봄철에는 산란하기 위하여 서해 연안으로 회유한다.

韓末,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금강하구에서 뱀어가 多獲되었고,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어장에서 조기, 도미, 민어, 청어, 갈치를 대상으로 안강망어업 漁期가 시작하여 5, 6월에는 삼치, 고등어, 갈치를 대상으로 하는 유자망어업과 도미, 청어, 오징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승어업의 成漁期가 되었다.

수심이 얇은 연안에서는 5, 6월에 어족이 외해로 분산하여 休漁期가 되나, 8월 이후에는 가을철 어장이 일시 이루어진다.

특히, 비교적 수심이 깊은 어청도 근해에서는 10-12월에도 도미, 홍어, 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승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주로 영세한 한국인에 의하여 어업이

14) —, 서해수산에 관한 사적고찰(II), 군산수전 연구보고 Vol 20(2), 1986, p. 34~37.

이루어졌으며 금강, 만경강 하구에는 소형안강망, 중선 등으로 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3~4월에는 고군산군도, 어청도 근해어장에서 가자미, 넙치 등 저서어류가 수조망과 기선저인망에 의해 조업이 이루어 졌다.

1945년 이후 혼란기에 있어서 沿近海는 낚시어업이 성행하였고, 소형기범선 저인망어업이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조기나 갈치의 자원은 60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금강하구에서 어획되었던 뱀어가 1961년도 부터 전혀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1960년 중반기부터 낭장망 어업이 고군산군도와 충남일대의 연안과 도서주변에서 멸치, 베도라치, 첫새우를 대상으로 조업하였으며, 금강하구에서는 眼鏡網어업이 첫새우를 대상으로 20척 정도가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해수의 오염과 무질서한 남획으로 수산자원이 크게 감소하여 주요 魚種은 거의 어획되지 않고 있다.

현재 沿近海에서 多獲되는 魚種은 충남, 전북 연안해역의 第3種 共同漁場에서 잡히는 멸치, 까나리, 베도라치, 새우류, 게, 농어, 우럭 順이고 沿近海어업에서는 게류, 새우류, 베도라치, 삼치, 우럭, 까나리 등으로 나타났다. 고군산군도, 어청도 근해에서는 새우류, 게류, 조피볼락, 삼치, 조기, 농어, 노래미, 붕장어, 양태 順으로 한말이나 일제시대의 주요 어종은 거의 잡히지 않거나 소량 어획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5)16)</sup>

## 2. 水産養殖業

이 지역의 양식업은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다. 屈江銀之助의 “전북 수산의 大勢”에서 보면 管内는 아직 양식을 경영하지 않으나, 넓은 간석지의 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북, 충남일대의 수산양식업은 자연산 해태양식 이외에는 산업화되지 못하였다.

1909년 4월 1일부터 실시되었던 “구한국 어업법”에 양식업을 제2종 면허어업으로 규정한 이래 在韓 일본인들은 면허를 얻어 합법적으로 양식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양식업 <표 2> 은 1913년에 전주만에서 굴, 가리맛양식 시험사업을 하였으나 1916년에 중지되었고, 同年부터 1915년까지 금강하류에서 해태양식을 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그러나 가리맛 양식사업은 1914년에 충남 당진군 도정리에서는 성공을 하였으나, 서천군 왕남리에서 실시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하여 역시 실패하였다.

합방직후에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어업권을 경쟁적으로 취득하여 패류양식업을 경영하였으나, 지역적 환경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양식법을 그대로 사용하므로써 1920년도에는 폐업하는 자가 속출되었다.<sup>17)</sup>

15) 수산진흥원, 연안어장 기본조사보고서(충남편), 1998, p. 28~36.

16) —, 연안어장 기본조사보고서(전북편), 1998, p. 24~29.

그러나 1935년에는 조선총독부수산시험장은 충남 大也島에서 이 지역에 알맞은 新型浮筊의 경제시험을 시작하여 성공을 하였다. 이 해태양식법은 광복이후 제 3대 수산시험장장을 역임한 바 있는 張貞鉉씨가 서해안에 적합한 西鮮型浮筊으로 개발하여 그 공로가 매우 크다. 현재 大也島에는 그의 功德碑 세워져 있다.<sup>18)</sup>

해방된 후에는 양식업자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데다가 국내수요마저 부족하여 생산이 일제시대말기보다도 오히려 감소되었고, 1952년 6·25동란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기에는 더욱 감소 되었다. 그러나 휴전 후에는 약간의 기복을 보이면서 생산이 점차 증대되었다.

특히 1956년부터 추진한 정부 년차 계획으로 그 생산고는 현저히 증가되기 시작하였다.<sup>19)</sup> 그러나 1960년대 初까지 굴, 해태, 바지락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미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군산·옥구 지역은 1961년에 고군산군도(표 3)에서 굴, 해태, 바지락 양식을 실시하여, 굴양식은 면허 2건에 총 10,191M/T을 생산하였고, 해태 양식은 실패하여 거의 自然産 해태 생산에 불과하였다.

<표 2> 양식에 관한 시험과 성과

道 別	年 度	試 驗 地	試 驗 種 別	成 果
全北	1913	全州灣	굴·가리맛 養殖	1916年 中止
	1913-15	錦江 下流	해태 養殖	不良 中止
忠南	1914	唐津郡道丁里	가리맛 養殖	良好
	15	舒川郡王南里	"	不良 中止
	17	"	굴 養殖	"

資料：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1923

<표 3> 수산양식업의 현황

免許漁種	免許地의 漁業權	生 産 高		行 政 人 員	入 漁 人 員
		數 量(M/T)	金 額(원)		
굴 2(2)	굴	10,191 (7,000)	2,996,659 (2,450,000)	18 (6)	300 (32)
해태 3(4)	해 태		(1,350)		
바지락 1(2)	바지락	(63)	(12)	(12)	(240)

資料：群山漁業組合 決算書, 1962

群山漁協이 設立된 1962년 이후에는 수산양식업은 미약한 상태로 1967년의 양식업 실태는 群

17) 박구병, 한국수산사, 태화출판사, 1996, p. 331.  
 18) 수우회, 전개서논문, 1987, p. 203.  
 19) 수산청, 한국수산사, 광명인쇄소, 1968, p. 606.

山水協官內 27개 자연부락에서 13,588명이 수산업에 종사했는데, 그 중 水産養殖業은 兼業을 합하여 겨우 38명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해태와 바지락 양식자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1980년 이후에 들어서면서 해태양식을 중심으로 바지락, 새꼬막, 굴, 미역, 해삼 등 多樣化되었다. 그 중에 해태는 19개 漁村契에서 면허건수 94건에 2,183ha으로 1985년에 비하여 1.8배가 증가하였고, 바지락은 신시도와 월연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바지락은 선연리, 어은리, 무녀도 등 11개 漁村契에서 22건에 228ha, 새꼬막은 선연리, 비안도, 방축도에서, 피조개는 비안도, 장자도에서, 굴양식은 개야도, 해삼은 관리도, 말도에서 각각 양식하였다. 미역은 1975년도부터 장자도에서 양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뱀장어, 가두리 양식, 진주 양식 등 다양하게 내수면 어업이 급속히 성장되었다.

### 3. 水産製造業

수산물은 腐敗하기 쉬운 자연적 屬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消費地에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어 곧 消費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도저하 및 腐敗를 방지하고 使用價値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지 製造加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수산제조업의 발달은 당연히 공업의 발달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조시대에 있어서의 공업은 시종일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만큼 수산제조품의 발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만 乾製品, 鹽製品 등의 低次加工과 氷藏船박에 없었다.

건조방식은 동해안의 명태어업을 주로 해서 성행했다. 또한 염장방식은 서해안의 조기어업을 주로 해서 발달되었는데<sup>20)</sup>, 이는 자연환경이나 소비자와의 거리관계 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또한 어장과 소비자와의 거리가 멀고 漁期가 온난한 기후에 多獲됨으로 그 처리법으로써는 鹽藏이 가장 簡易하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어업 및 양식업의 발달과 수산물 수출의 증대에 따라 수산제조업도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합방이후 30여년 동안의 製造高는 전국적으로 약 30~40배까지 증가하고 있다. 1939년에는 金額面에서 어획고에 養殖高를 합하여도 製造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획물과 養殖物을 製造加工하여 부가가치를 증가시킨 결과였던 것이다<sup>21)</sup>.

『朝鮮之水産』에 기록된 전복의 製造, 加工工場의 내역을 <표 4>에서 살펴보면, 뱀장어(鰻), 방어(白魚), 새우(蝦), 전복(鮑), 해파리(海月) 등의 종류에 대해서 장담고기, 장조림(佃煮), 보일드(Boild:水煮), 調味(味府)등의 제조공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외 어묵도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산제조업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얼음의 수요량은 수산업의 발달과 함께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이 시대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량은 공급량을 초과하였다. 1923년경에는 전국에 제빙고의 수가 123개 있었는데 충남과 전북에 각각 11개, 2개가 있었고, 그의 제빙가능력은 1,160톤,

20) 吉田敬市, 조선수산개발사, 호수회, 1954, p. 116.

21) 수산사편찬위원, 전계서, p. 334.



1,000톤 정도였다.<sup>22)</sup>

그리고 조선총독부에서는 1927년 이후 氷需給의 원활을 위하여 19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제빙 공장 및 저장소를 신설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주어 장려하였다.

政府補助에 의하여 건설된 것으로서는 1929년 3월에 竣工된 일본인회사 林兼의 군산냉장고가 있었으며, 당시 국내에서 가장 손꼽히는 시설로서 냉장고 약 5백관, 냉동능력 일면당 약 35만관 이었다.<sup>23)</sup> 수산제조업은 해방 후 日人の 퇴거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생산고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더욱이 6·25동안으로 수산제조업에서도 극심한 타격을 받아 생산고는 격감되지 않을 수 없었다.

<표 4> 製造·加工工場 및 種類

許可番號	工場의位置	製造種類	經營者
96	群山府 榮町	鰻 滿 漁 田 麩 鯖 味 增, 海 佃 佃 煮 白 魚 水 煮, 白 魚 味 附 鯖 水 煮, 鯖 味 附 蝦 水 煮, 蝦 味 附 鮑 水 煮, 鮑 味 附 海月明碧滯	武 部 諱 雄
98	金提郡 金提邑 堯村里	鰻 味 附	野 萬 善 吉

資料：朝鮮水産會, 朝鮮之水産, 119號

어선에서의 어획물 처리는 주로 냉장용빙으로 선도를 유지하여 소건품, 염건품, 염장품으로 가공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군산어업조합에서 1961년도에 조사한 수산물제품 상황을 <표 5>에서 살펴보면 1960년은 1,303M/T에서 61년에는 1,549.3M/T으로 증가되었다.

1961년의 제조품은 주로 갈치, 조기, 서대가 소건품으로 342.2M/T(22.1%), 염건품이 30.3M/T(1.9%)이었고 갈치, 병어, 전갱이, 조기, 강달어, 준치, 새우, 잡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염장품이 1,176M/T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산시수협 관내의 수산제조업은 60년대 초에는 아주 미미한 상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식생활과 수출 촉진을 위한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의한 沿近海漁業이 급 성장되는 것에 발맞추어 수산가공업분야도 투자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부터 對日輸出을 대상으로 패류, 새우, 어류 등을 가공하고, 자숙, 염장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가내공업이나 零細소규모 제조업자가 성업하였으나 80년대 들어서면서 거의 도산되고, 남아있는 업체는 소라 배꼽고동 등을 대상으로 자숙 제조업과 갈치, 풀치, 메통이, 강달이 등을

22) 一, 전계서, p. 351~353.

23) 수산사편찬위원회, 전계서, pp. 351~353.

우리 나라 西海岸의 水産業 및 水産教育機關의 變遷過程에 관한 史的 考察

원료로 하는 튀김어묵 제조업체, 조갯살, 쥐포, 새우 등 調味乾脯 제조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水産物 製造狀況

區分	漁獲量	數量 (kg)	金額 (천원)
1960	總計	1,303,665	15,224
1961	"	1,549,317	26,335
素乾品	갈치, 조개, 서대	342,739	5,770
鹽乾品	조기	30,308	912
鹽辛品	-	-	-
鹽藏品	갈치, 병어, 전갱이 조기, 강달어, 준치	1,176,270	19,653

資料 : 漁業組合決算書, 1962

### Ⅲ. 水産教育機關의 變遷科程

우리 나라의 수산업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배경중의 하나는 수산교육 분야가 이바지하여 왔다는 점을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저자는 전북지역에서 수산교육을 담당했던 교육기관에 사장·산재되어 있는 기록과 자료를 찾아내고, 관계자들의 발언을 청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 근대에 실시된 교육기관의 실태와 변천과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日帝時代에 있어서 水産教育機關

##### 1) 群山(公立)簡易水産學校

일제시대에 일인에 의한 새로운 교육제도가 본격화되면서 1910년에 군산보통학교에 併設되었던 군산실업학교가 1911년 11월 1일 군산간이학교로 개칭되었고<sup>24)</sup>, 이 농업학교에<sup>25)</sup> 1915년(大正 4년) 3월 23일 군산간이수산학교의 부설이 인가되었다. 이것이 우리 나라 正規수산교육기관으로서의 嚆矢라 할 수 있다. 처음의 학교 위치는 전북 옥구군 소재의 농업학교에 부설되었기 때문에 山間에 있어 수산학교의 성격에는 적합하지 않아 해안을 접한 곳에 교사를 신축하고 1916년 10월 6일부터 농업학교와 분리하여 군산간이수산학교가 설치되었다.

24)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조선인교육실업학기요람, 1938.

25) 군산공립농업학교는 1923년에도에 정읍시장으로 이관 현 정읍농공고등학교 전신이 됨.

## 2) 群山(公立)水産學校

1922년 2월 朝鮮教育令이 개정됨에 따라 군산간이수산학교는 학칙이 개정되어 군산수산학교로 개편되었다. 授業 年限은 2년, 입학연령은 12세 이상이며, 수업년한은 6년의 보통학교 또는 尋常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를 모집하여 간이학교와는 성격이 다른 실질적인 중등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定員은 1개 학년에 20명이었으며, 학생을 유치시키기 위하여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고 식비를 補助해 주었다.

## 3) 全北水産講習所

군산수산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전북지역에서의 수산교육기관이 全無한 상태가 되어 전북에 수산학교의 설립과 水産人才 養成의 필요성이 高潮되자 苗浦出身으로서 대규모의 농업과 2-3척의 어선을 보유하고 어업을 경영하고 있던 辛世源氏(그 당시 道評議員)는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전북에 수산학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sup>26)</sup> 결국은 그 뜻이 받아들여져 1943년 8월 1일 1년제 전북수산강습소가 私立으로 개설되었다.<sup>27)</sup> 그 위치는 그 당시 신씨의 주거지였던 곰소의 현 변산중학교이었다.

## 2. 解放後 水産高等學校의 實態

### 1) 全北(公立)水産中學校

사립학교로 운영된 전북수산강습소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교되자 辛世源氏의 장남 辛命根氏는 母親의 권유로 父親의 遺業을 잇고자 공립수산학교의 설립운동을 하였다.

따라서 전라북도에 자기의 소유지 30만평을 喜捨하는 조건으로 수산중학교의 설립을 요구하였고<sup>28)</sup>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져 1948년 8월 14일 인가를 얻어 동년 10월 1일 수산강습소 위치에 공립 전북 수산중학교가 개교하였다. 4년제로 출발한 전북수산중학교는 도중에 교육령의 개정에 따라 개교 3년 만인 1951년 1회 졸업생 46명을<sup>29)</sup> 배출함과 동시에 변산 중학교(3년제)와 변산 수산 고등학교(3년제)로 각각 학제와 교명이 변경되어 같은 교정에서 운영되었다.

### 2) 邊山-苗浦(公立) 水産高等學校

전북수산중학교의 폐교와 동시에 변산수산고등학교가 1951년 9월 23일 개교되었다. 변산수산고등학교는 곰소에서 1958년도까지 운영되다가 1959년도에 줄포로 이전되면서 학교명도 줄포수산고등학교(줄포중학교와 교정을 함께 사용)로 개칭되었다.

26) 전북수산중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변산중학교 동창회장 김행균씨의 증언.

27) 신세원씨의 장녀 신경근씨의 증언.

28) 김행균씨의 증언.

29) 변산중학교 소장된 기록.

죽포로 이전된 죽포수산고등학교는 곰소에서의 설립이 인가되어 동년 3월보다는 학생수가 늘어났다. 게다가 죽포항은 항구내 뱀이 가속적으로 형성되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감에 따라 자연히 어업이 쇠퇴해 가는 동시에 지원자수의 미달상태가 계속되어 마침내 곰소에서의 이전 3년 후 1962년 죽포수산고등학교가 폐교되면서 죽포고등학교로 개칭(1992년도에는 공업고등학교로 개칭됨)되었다.<sup>30)</sup>

### 3) 群山水産高等學校(道立)

군산의 師範學校가 폐교됨에 따라 1962년 2월 27일 고등교육기관인 군산수산초급대학이 설립되었고, 동년 3월 6일에는 군산수산초급대학에 併設수산고등학교가 인가되어 동년 4월 10일 개교식을 가졌다. 24학급으로 운영되었던 사범학교를 인수한 군산수산초급대학(4개학과, 8학급)은 剩餘施設의 효과적인 운영과 죽포수산고등학교 폐교에 따른 군산 및 인접지역의 중학졸업자에게 수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설수산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sup>31)</sup> 그러나 병설수산고등학교는 1965년 11월 군산수산고등전문학교(5년제)의 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1966년도에 폐교되었다.

### 4) 大川水産高等學校

해방이 되자 서해 수산인의 양성을 위해 1948년 7월 6일에 대천수산초급중학교(수산과 6학급)가 인가되었다. 3년 후에는 학제가 개편되어 1951년 8월 31일 대천수산고등학교로 승격 인가되었다.<sup>32)</sup> 10년 동안 중견수산인을 양성하여 서해수산개발에 공헌한 바 컸으나 학생자원의 부족으로 수산학교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1961년 12월 26일 대천농업고등학교에 합병하여, 大川實高로 개칭되었다. 1968년 12월 3일에는 다시 대천수산고등학교로 환원되었고, 1974년에는 대천서중학교가 병설되었다. 1976년에는 機關科, 1979년도에는 通信科가 증과되었고, 1993년에는 기관과를 동력기계과로 변경하였고, 1996년에는 漁業科를 海洋生産學科로 科名을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1998년 현재는 海洋生産學科, 양식학과, 동력기계과, 수산자영과 4개학과에 입학정원은 각각 40명으로 되어 있다.

## 3. 大學의 設立과 變遷

### 1) 群山水産初級大學

1961년 10월 군사정부가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률 제 708호로 사범학교를 폐교하고 1개道에 1개 교육대학을 설치한다는 방침에 따라 군산사범학교가 폐교되었다. 당시 군산, 옥구시민들은 군산에 교육대학과 상응하는 초급대학을 설립한다는 趣旨下에 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0) 그 당시 교사였던 김범숙 선생(전 군산고등학교 교사)의 증언.

31) 군산수산전문대학 개교30년사, 1993, p. 100.

32) 대천수산고등학교, 학교교육계획, 1997, p. 336.

농업, 공업, 수산업 부분의 대학설립을 검토한 결과 군산은 서해수산의 중심지로 서해수산개발이 국가산업개발에 필수요인이며,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해양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착안하여 수산초급대학을 설립할 것을 결정하고 정부에 건의하였다.<sup>33)</sup> 1962년 2월 27일 문교부령 제 2777호에 의거 도립 군산수산초급대학이 인가되고 동년 3월 6일 문교부 제37호로 병설수산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설치학과는 초급대학 2년, 고등학교 3년으로 漁撈科, 製造科, 增殖科, 造船科(후에 機關科로 改編) 각과 80명으로 320명이 認可되었다.

## 2) 群山水產高等專門學校, 水產專門學校, 水產專門大學으로의 改編

1966년 3월 정부는 경제개발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중학교 졸업자나 입학자격을 가지는 5년제 고등전문학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3년)과 초급대학(2년)을 통합하여 5년제 교육기관인 군산수산고등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sup>34)</sup>.

5년제 학제는 기술교육 기간이 너무 장기적이고 중도 탈락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교육적으로 효율적인 기술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1974년에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2년간 실기와 이론을 집중시켜 신속한 중견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2년제인 군산수산전문학교로 개편되었다.<sup>35)</sup>

그리고 정부는 단기 직업고등교육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전문학교와 대학이라는 명칭이 가져다주는 영향의 차이 등으로 대학을 選好하는 사회적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국립학교 設置額을 변경, 군산수산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sup>36)</sup> 설치학과는 수산가공과, 기관과, 어업과, 수산증식과, 통신과, 해양토목과 등 5개학과에 각 160명으로 총 800명으로 인가되었다.

## 3) 群山大學校 水產大學으로의 改編

우리 나라 서해안에서의 수산대학의 설립은 수산자원의 고갈에 따른 기술의 첨단화, 수·해양계 대학의 남해안 편중으로 인한 지역교육의 불균형, 중국대륙과 교역에 따른 수산기술의 競爭力提高등의 이유로 그 동안 2년제로 설치 운영되어 왔던 군산수산전문대학을 대통령령 제 13604호 국립대학교 설치령 변경에 의하여 1991년 3월에 군산대학교와 군산수산전문대학이 통합됨으로서 4년제 대학인 군산대학교 수산대학이 되었다. 1994년 3월 수산대학이 해양산업대학으로, 1997년 3월에 다시 해양과학대학으로 개명되었다.<sup>37)</sup>

33) 군산수산전문대학, 전게서, p. 67.

34) —, 전게서, p. 117.

35) —, 전게서, p. 161.

36) —, 전게서, p. 203.

37) 군산대학교, 대학요람, 1997.

## IV. 論議 및 考察

### 1. 水産業의 變遷

우리 나라 어업의 역사 중 서해안을 中心으로 한 변천사를 韓末以後부터 고찰해 보았다.

중부서해안의 어업은 半移動性 漁具·漁法을 벗어나지 못해, 그 經營面이나 技術面에 있어서 기초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列強國들은 일찍이 이곳 好漁場을 빈번히 出漁하여 漁獲했으며, 더욱이 漁業權을 獲得하여 자유로이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한민족에 대한 갖가지 橫暴을 恣行하여 어장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대규모 어선과 근대적인 어구·어법으로 어획하였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가재정의 窮乏으로 인하여 어민은 막대한 徵稅를 요구받았으며, 자본력 부족으로 인하여 高利資金業者인 객주나 出買船의 橫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업은 惡循環을 계속하면서 그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유가 이곳 어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어업의 경우, 일본인 이주어민에 의해 근대적 어업이 활기를 띠면서부터 부분적 현상이기는 했으나, 한국어민중에서도 한국재래의 漁具·漁法에 비해서 능률적인 日本式 漁具·漁法을 模倣, 習得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날로 증가해갔다. 특히 이 지역에 보급된 안강망은 한국에 보급된 漁具·漁法 중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이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1962년 수산협동조합이 설립될 때까지의 비교적 혼란기에 있어서 주요 어업으로는 안강망 어업이었으며, 안강망어선의 크기는 15톤 내외로 10톤 미만의 소형안강망, 연승어업, 일본조어업 등 낚시어업이 沿近海에서 성행하였고,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이 沿近海에서 不法으로 허가 없이 조업하고 있었다. 그리고 50年代 초반의 주요 대상어종은 조기, 갈치, 홍어 등으로, 조기의 경우 60년대 초반에는 54년에 비해 2.2배가 감소하고, 갈치는 2.6배나 감소되었으며, 금강하구에서 많이 잡혔던 뱀어는 전혀 실적이 없었다. 70년대부터 어장이 황폐됨에 따라 어선도 현대화, 대형화되었고 어구도 개량되어 수해, 암해 대신으로 범포를 개량하여 어획성능도 우수할 뿐 만 아니라 1척 당 어구통수도 2~4통씩 사용함으로써 서해어족 감소원인이 되었다.

수산양식업의 경우를 보면 韓末에는 전무한 상태에 있었고, 일제시대의 경우에는 일본인에 의해 錦江하류, 舒川, 唐津 등지에서 海苔, 가리맛, 굴 등에 대한 養殖可能性을 시험해 보았으나, 그 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전북의 각 島嶼에서 海태양식이 시작되면서 養殖高는 매년 增加趨勢를 보였다.

해방 후에도 해태, 굴, 바지락양식은 1957년에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굴과 바지락은 실적을 올렸으나, 해태 사업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충남에서 새우양식을 중심으로 바지락, 백합, 등의 패류양식과 해태, 미역 등의 양식이 활기를 띠었고, 뱀장어, 잉어, 메기 등 민물고기의 양식이 성업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해수의 오염과 간석지의

매립 등으로 양식어업은 급減하였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 11년 동안 전북의 갯벌은 219km<sup>2</sup>에서 113km<sup>2</sup>로 48.4%가 감소하였고, 충남은 40%, 인천경기는 22%가 줄어들어 패류 양식 등 양식어업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수산가공업을 보면, 수산제조업은 鹽藏, 氷藏, 日乾法 등의 低次工段階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경우에도 製造量과 製造加工方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조량에 있어서 이 시대 말기에는 초기보다 무려 43배의 증가를 보였고, 제도가공법도 저차가공단계를 벗어나 된장 담그기, 장조림, 보일드, 調味法 등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수산제조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어류의 需要量도 수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 시대 전체적으로 보아 供給量을 초과하였다.

해방 후 수산제조업은 素乾品으로 주로 갈치, 조기, 서대 등이 처리되었고, 鹽藏品으로 갈치, 병어, 전갱이, 조기, 강달어, 준치 등이 1,176톤이나 생산되어 젓갈산지로 명성을 떨쳤다.

70년대 이후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 및 냉동사업이 활발히 발달하였고, 염장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 2. 水產教育機關의 變遷

전북과 충남지방에서 수산교육을 담당해 왔던 교육기관에 대한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다. 전북과 충남지방에서 수산교육을 담당해왔던 既存의 고등교육기관의 設立, 廢校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全廢되었고 현재는 유일하게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대전수산고등학교만이 교육기관으로서 현존하고 있다.

이 지방에서의 중등교육기관의 설립과 폐교의 과정을 살펴 볼 때, 정규 수산교육기관의 發祥地인 군산에서부터 수산교육이 최초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곰소, 줄포, 대천을 거쳐 연쇄적으로 다시 군산에서 높은 수준의 수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군산간이학교 이후, 이 지방에의 중등교육기관에 의한 수산교육은 여수, 통영의 경우와는 달리 일괄성 있게 유지 못하고 여러 지역을 순환하면서 시간간격을 두고 이루어져 왔던 배경중의 하나는 군산을 위시한 전북과 충남지방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산업보다는 농업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수산에 관한 관심과 열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推定해 볼 뿐이다.

다만 吉田敬市の “朝鮮水產開發史”를 인용한 장수호 교수의 논문에서<sup>51)</sup> 단편적으로 소개되었고, 여수수산대학의 “開校 70年史”에서는 그에 관한 사실을 밝히고는 있으나, 약간 修正되어야 할 부분이 발견되었다. 필자는 그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史實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았으나, 당시 관련자들이 이미 고인이 되어 증언을 청취할 수 없었고 보관된 자료가 거의 없어 기대 만큼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에 관한 자료가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공식화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여수수산대학과 경상대학교 수산대학이 간이수산학교 및 傳習所로 시작하여 그 맥을 이어 가면서 개편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一貫性 있는 史料의 보존과 기록이 용이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북과 충남지역의 수산교육기관은 그 설립과 폐교, 운

영 면에서 시간적 간격이 컸고 전쟁 등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지역으로 이전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기록된 關係史料의 분실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1962년도에 군산에 세워진 군산수산초급대학의 설립은 대학교의 시발과 더불어 고등전문학교, 수산전문학교, 수산전문대학, 정규 4년제 대학으로 학제가 개편되어 가면서 水産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과를 증설하여가면서 업계가 요구하는 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서해안에 한국 최초로 세워진 군산수산학교가 5년을 지속하지 못하고 廢校되었고, 줄포 수산고등학교, 군산수산고등학교와 전북수산강습소 등도 그러한 길을 거쳤다. 우리 나라의 수산업의 발전은 자원감소, 어장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 V. 結 言

우리 나라 중부 서해안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그 인접지역에서 韓末부터 지금까지 서해안에 서 이루어진 수산업과 그에 병행하여 세워진 수산교육기관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사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韓末에 있어서 어업은 서해의 지형, 지세와 海況 조건에 부합하는 移動性 漁具인 주목망, 漁箭, 중선, 초선, 中國船 등이 시행되었고, 漁具·漁法은 경영과 기술이 유아기를 면치 못하여 중국, 일본인이 어장에 침투하여 수산자원을 수탈하였으며, 한일합방이후에는 한국 재래어구, 어법에 비하여 능률적인 안강망, 유자망, 연승, 수조망, 기선저인망어구가 전래되어 성행하면서 개량, 발전하였다.

韓末에 주요 어종은 조기, 대구, 삼치, 도미, 청어 등의 어종이 연안에서 多獲되었으나, 지금은 오징어, 멸치, 봉장어 새우, 게, 까나리, 베도라치, 멸치, 병치 등이 어획되고 있으며, 한말과 일제하시기에 어획되던 주요 어종중 거의 어획되지 않거나 회귀종으로 전락된 종이 많다.

수산양식업은 60년대 초반까지 거의 양식되지 못했고 70년대부터 해태, 김, 미역, 백합, 새우, 우럭등이 양식되었고, 뱀장어, 메기 등 민물장어 등의 민물어류 양식도 활기를 띠고 있다.

수산가공업은 염장, 냉장, 일건법 등의 저차공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 논산, 광천, 군산 줄포의 젓갈업이 비교적 잘 발달되었다.

한국 최초의 수산학교가 전북 군산에 세워졌으나 전북과 충남에 세워진 수산교육기관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폐교되었거나, 개편을 거듭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자원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 서해 수산업의 경우 한말 풍부했던 수산자원 때문에 군산에 한국최초의 수산학교를 세웠고, 62년도에는 초급대학이 세워져 서해 수산교육의 중심으로 발전, 폐교, 개편되는 가운데 수산업과 같이 발전하여 왔다.

더욱이 산업현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해양환경의 변화로 광활한 간석지 매립으로 어장 상실화, 해양오염으로 서해수산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 중부서해안은 갯벌의 상실, 공장폐수, 생활폐수 유입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증가함으로써 바다는 죽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과 수산진흥원 및 수산·해양 관련 연구소에서 바다를 살리고 지키는 지속적 연구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 VI. 參考文獻

- 1) 김수관, 이길래, 전라북도의 수산교육에 관한 사적 고찰, 수산경영론집 Vol 20(2), 1996.
- 2) 이길래외, 서해안의 수산업에 관한 사적고찰(Ⅰ), 군산수대 연구보고 Vol 19(2), 1985.
- 3) —, 서해안의 수산업에 관한 사적고찰(Ⅱ), 군산수전대 연구보고 Vol 20(2), 1986.
- 4) 이길래, 서해안의 수산업에 관한 사적고찰(Ⅲ), 군산대교 수과연구소 논문집 Vol 14, 1998.
- 5) 수산진흥원, 연근해어장 조사보고서(전북, 충남편), 1988.
- 6) 장수호, 수산경영학의 본질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Vol.XVII No. 1, p. 21.
- 7) 金生, 龍岩浦公水産學敎の發展, 朝鮮之水産 제 86 號, p. 11.
- 8) 紳田獻二, 漁業一般, 成山堂, 1981.
- 9) 下壁組, 山脇宗次, 한국수산업조사보고, 1905.
- 10) 吉田敬示, 朝鮮水産開發史, 潮水會, 1954.
- 11) 江銀之助, 朝鮮之水産, 1923.
- 12) 朝鮮總督府, 朝鮮統計, 1938.
- 13) 地田林儀, 朝鮮と簡# 學校, 활문사, 1935.
- 14) 名越正廣, “水産教育の特異性と學校經營に就て” 朝鮮之水産 제 134號, pp. 10~11.
- 15) 黑田恒六, “群山公立水産學校の内容” 朝鮮之水産, p. 47.
- 16) 조선총독부 내무부학무국, 조선인교육 실업학교 요람, 1938.

#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Fisheries Industry, Fisheries Institute of West Coast of Korea (Around the Gogunsan Islands and adjacent Area)

Kil-Rae L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 have studied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fisheries industries, fisheries Institute in abreast of developing fisheries industries of west coast of Korea since 1910 year with regard to the Gogunsan I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 1910 year, fishery industry has been carried out shifting fishing gear e.g set-net in shallow waters, small stow net, small seine net adapting to the topographical feature, shape of coast, oceanic condition, however, the fishing gear and fishing method were undeveloped, so that, Japanese fishermen had been exploited fisheries resources penetrating the fishing ground.

Most important species were lot of captured croaker, cod, spanish mackerel, sea abream, herring in coastal sea. nowadays, squid, anchovy, shrimp, crab, pompret were much captured. The species were captured in 18 century were not captured. It is rarely than that period.

Fisheries aquatic culture had been not farmed till 1960 year. but sea laver, shrimp, crab, had been breded 1970 year also, the fresh water fish e.g. eel, cat-fish had been breded activately.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were composed of salt. icing, dry, method. the salted fish industry had been prevailed at Gangyng, Kwangchon, Kunsan, Julpo comparatively.

The fisheries institute had been established at Kunsan at first, but institute established in other region had been abolished in a short time. This phenomenon was related with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e western coast fisheries industries had been wasted of decreasing of fisheries resources, variation of environment. Accordingly, the study of preserving the marine resources. educated man power who engaged in fisheries field have to accomplish.

Sea was dying with reason of loss of mud in west coast factory waste, waste of life the

李 吉 來

increase of accident of sea polluted, each illegal fishing industry physical and chemical reason etc. in this respect, Kusan maritime college, fisheries developing agency, institute have to take important role for developing fishing industry.